

**해남 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 1차 학술자문회의 회의자료 -

2020년 2월 3일(월)



(財)한울文化財研究院  
HanUI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I. 조사 개요

□ 조 사 명 : 해남 전라우수영 종합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 조사지역 :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436-3번지 일원

□ 조사면적 : 2,206㎡

□ 허가번호 : 문화재청 제2019-1485호

□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해남군

□ 조사기간 : 2019년 12월 22일 ~ 2020년 2월 현재(실조사일수 36일)

□ 조사기관 : 재단법인 한울문화재연구원

## □ 조사 목적

해남 전라우수영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부지에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의 잔존규모와 성격 등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정비사업에 반영하고자 한다.

## □ 조사 경위 및 경과

조사지역이 위치한 전라우수영은 조선시대 수영서 중 가장 규모가 큰 수군진성으로 전라우도 수군의 본영이다. 앞바다는 명량(鳴梁) 또는 울돌목이라는 매우 좁은 해협으로 조류가 빠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전라우수영 앞으로 양도(羊島)가 있어 울돌목의 거친 물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동쪽으로 약 5km 떨어져 목이 좁아지는 곳에 원문(轅門)성을 축조하여 육지로부터 침입을 막았던 희소성이 뛰어난 유적이다. 이러한 가치성을 인정받아 전라남도 기념물 제139호(1992년)에서 2016년 9월 30일에 사적 제535호로 승격 지정되었다.

해남 전라우수영에 대한 조사는 2000년 성곽과 성내부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 망해루지와 북문지 등을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2009

년 망해루를 복원하였다. 이후 2017년 망해루 서측 성벽이 훼손되어 긴급하게 수습 차원의 발굴조사가 실시되기도 하였고, 2018년에는 망해루~서문지 성벽 구간과 북문지~동문지 성벽 구간, 영창 추정지역, 객사·동헌 추정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에는 동헌 추정지역과 남측성곽 추정지역 일부 구간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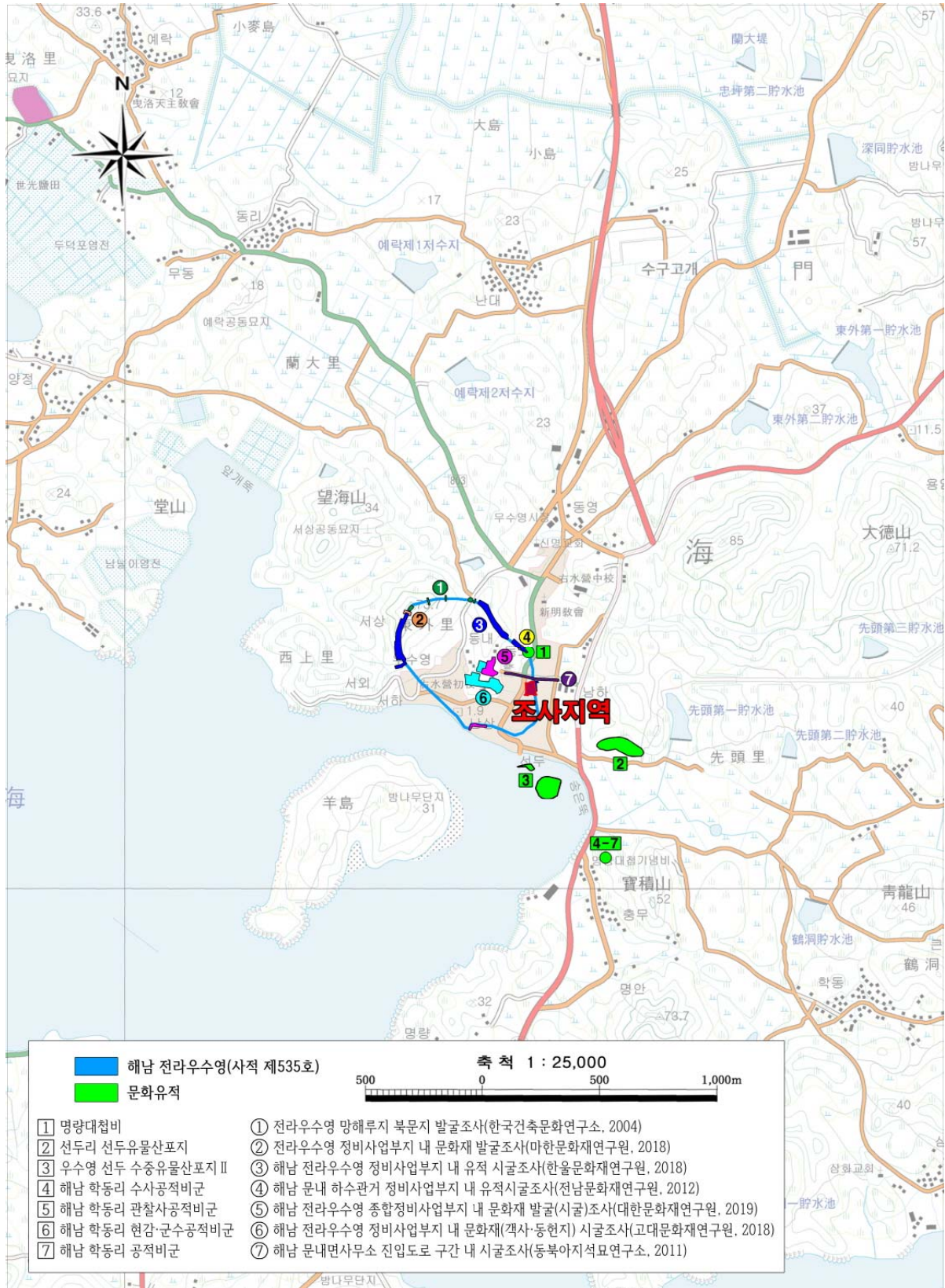
이번 정밀발굴조사는 2018년에 우리연구원에서 실시한 전라우수영성 망해루~서문지 성벽 구간과 북문지~동문지 성벽 구간, 영창 추정지역 시굴조사 지역 중 영창 추정지역에 대한 정밀발굴조사이다. 조사 면적은 2,206㎡이며, 시굴조사에서 추정주거지, 주혈 등의 유구가 확인된 바 있다.

현장조사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 허가(제2019-1485호)를 받아서 2019년 12월 22일부터 정밀발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결과 현재까지 추정 건물지 1기, 추정 주거지 2기, 아궁이 5기, 소결흔 4기, 잡석독립기초 1기, 구상유구 1기, 수혈 7기, 주혈 17기, 미상석렬 1기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조사지역 동측 일원에서는 잔존성벽과 성벽의 뒷채움과 관련된 유구가 조사되었다.

- 2019년 11월 22일 :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문화재청 제2019-1485호)
- 2019년 12월 22일 : 정밀발굴조사 현장조사 착수
- 2020년 2월 3일 : 1차 학술자문회의 개최

#### □ 조사단구성

- 조 사 단 장 : 최종규(한울문화재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박호승(한울문화재연구원 부장)
- 조 사 원 : 석순현(한울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준 조사원 : 이상직, 김종오(한울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보 조 원 : 이건(한울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 및 주변 문화유적 현황도(1:25,000, 도엽번호 NI 52-5-14-3)





사진 1. 해남 전라우수영 일원 위성사진

## Ⅱ. 조사지역 및 주변 환경

### 1. 자연·지리적 환경<sup>1)</sup>

해남군은 한반도의 최남단 서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동북쪽이 내륙인 강진·영암과 연결된 육지이며 나머지 3면은 모두 바다인 반도이다. 군의 지리적 위치는 동단 북일면 내동리 126°44'10"~서단 화원면 화봉리 126°16'10"이고, 남단 송지면 갈두리 34°17'32"~북단 화원면 매월리 34°45'10"이다. 서북으로는 목포시, 남으로는 진도군, 동북으로는 영암군, 동으로는 강진군 등 5개 시·군과 접해 있다. 행정구역은 1읍 13면 514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서 수는 65개(유인도 7개, 무인도 58개)이다. 군의 총면적은 1031.4km<sup>2</sup>이며 임야(43.4%)와 농경지(33.9%)가 대부분의 면적을 구성하고 있다.



도면 2. 전라남도 행정 구획도

해남군의 지형은 소백산맥의 지맥이 해남반도 끝까지 이어지면서 완만한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동북부지역은 흑석산(650m) 등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해남군의 중부 및 서남부는 평야지대로 간척지와 양식장 등이 이어진다. 해남군의 주요 산들은 대둔산(672m)과 달마산(489m), 대흥사를 안고 있는 두륜산(703m) 등이 있으며 중심부에는 삼산면과 현산면 경계에 병풍산(313m), 마산면과 해남읍 사이의 금강산 등이 있고, 동북부의 계곡면과 영암군 학산면 사이에 흑석산 등이 있다. 그리고 문내면과 황산면 사이에 납석으로 유명한 옥매산(174m)이 있다.

해남군의 하천은 단류(短流)로 해남천, 옥천천, 삼산천, 현산천, 계곡천 등이 포함된 530여 개소의 소하천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어 농사를 짓기에 조건을 이루고 있다.

1) 해남군청(<http://www.haenam.go.kr>) 해남소개 참조.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7, 『해남 신덕리 청자요지』 p.2~3에서 재인용.

## 2. 고고·역사적 환경<sup>2)</sup>

### 1) 고고 환경

해남지역에서는 여러 차례 지표조사를 통해 구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유물이 확인되었다. 해남지역의 고고학적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1975년 최몽룡<sup>3)</sup>과 1977년에 문화재관리국<sup>4)</sup>(現 문화재청)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본격적인 종합학술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986년 목포대학교박물관<sup>5)</sup>에 의해서이다. 이후에도 해남군에서는 부분적으로 지표조사가 몇 차례 이루어져 새로운 유적들이 추가되었다.<sup>6)</sup>

구석기시대 유적은 산이면 대진리 월산, 덕송리 덕곡·황조, 구성리 구성, 성산리 방죽골에서 확인되었다. 유물산포지에서는 석영제 자갈돌을 이용하여 만든 여러면 석기, 찹개 등이 수습되었다.<sup>7)</sup>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백포리 패총<sup>8)</sup>이 있다. 패총은 현산면 두모마을 뒷산 경사면에 위치하며, 패각층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의 문화적 성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지석묘가 대표적이다. 북평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06개 군 800여 기 이상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마산·옥천·삼산·현산면에 집중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sup>9)</sup> 지석묘의 발굴은 현산 고현리<sup>10)</sup>·장소리<sup>11)</sup>·황산 호동리유적<sup>12)</sup>에 대해 이루어졌으

2)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7, 『해남 신덕리 청자요지』, 4~8쪽 발췌.

3) 최몽룡, 1975, 『전남고고학지명표』, 전남매일신문사 출판부.

4)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 -전라남도-』.

5) 최성락, 1986, 「해남지방의 선사유적·고분」, 『해남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6) 성낙준·신상효, 1989, 「해남 원진리 웅관묘」, 『영암 와우리 웅관묘』, 국립광주박물관.

최성락·정영희, 1997, 「고고학적 지표조사 보고」, 『화원 관광단지조성지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김경칠, 1998, 「해남 영호리 유적과 유물」, 『박물관연보』6, 목포대학교박물관.

최성락·정영희·박철원, 1998, 『현산-남간 국도확장 및 포장공사 사업구간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최성락·고용규, 1999, 「고고·관방유적」, 『문내-황산-해남간 국도 확·포장 공사구간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

은화수·최상중, 2001, 「해남 북일면일대 지표조사보고」, 『해남 방산리 장고봉고분 시굴조사보고서』, 국립광주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 해남군-』.

이영철·이은정, 2002, 「전남 해남출토 신자료보고」, 『호남고고학보』15, 호남고고학회.

7)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해남군-』.

8) 최성락, 1986, 「해남지방의 선사유적·고분」, 『해남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최성락, 1987, 「해남 백포만일대의 선사유적」, 『최영희선생환갑기념 한국사학논총』, 탐구당.



며, 상적 5기와 하부구조 3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무문토기편·석촉·석도 등이 출토되었다. 최근에는 2018년 군곡리 패총 발굴조사<sup>13)</sup>에서 지석묘 상석 2기와 하부구조 1기가 추가로 조사된 바 있다.

철기시대 유적으로는 군곡리 패총과 옥녀봉 패총이 있다. 군곡리 패총<sup>14)</sup>에서는 주거지와 토기요지가 발굴조사되어 화전을 비롯해 경질무문토기와 경질찰문토기 등의 토기류·토제품류·골각기류·철기류·석기류 등이 출토되었으며, 옥녀봉 토성 인근에 위치한 옥녀봉 패총<sup>15)</sup>에서는 대형옹관편과 적갈색경질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삼국시대 유적으로는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을 들 수 있다. 삼산면 신금유적<sup>16)</sup>에서는 3~5세기대로 추정되는 주거지 75기·수혈 15기·주구 4기 등이 발굴조사되었다. 현산면 분묘유적<sup>17)</sup>에서는 2회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주거지 57기·토광묘 3기·옹관묘 2기·석실묘 2기·석곽묘 6기 등이 확인되었다. 안호리·석호리 유적<sup>18)</sup>에서는 3세기 후반부터 4세기 초반 사이에 만들어진 고분 50기 등이 확인되었다.

분묘유적은 옹관묘와 석실묘가 있다. 옹관묘는 삼산면 봉학리 신금마을에서 합구식옹관 1기, 원진리 농암마을에서 옹관 3기가 수습<sup>19)</sup>되었으며, 화산면 부길리유적 3옹식 옹관묘가 확인<sup>20)</sup>되었다. 석실묘는 현산면 월동리 조산고분<sup>21)</sup>, 북일면 방산리 장고봉고분<sup>22)</sup>, 용일리 용운고분<sup>23)</sup> 등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옥천면에 위치하는 만의총 1호분<sup>24)</sup>·만의총 3호

9)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해남군-』.

10) 이영문·이정호, 1998, 『해남 고현리 지석묘』, 목포대학교박물관.

11) 최성락·이정호·최미숙, 2000, 「해남 장소리·선진리유적」, 『문화유적 시·발굴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12) 최성락·고용규·안재철, 1992, 「해남 호동리 지석묘 발굴조사보고」, 『해남 진산리 농청자요지』, 목포대학교박물관.

13) 목포대학교박물관, 2018, 「해남 군곡리 패총 5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14) 최성락, 1987, 『해남 군곡리패총 I』, 목포대학교박물관.

최성락, 1988, 『해남 군곡리패총 II』, 목포대학교박물관.

최성락, 1989, 『해남 군곡리패총 III』, 목포대학교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2017, 『해남 군곡리 패총 발굴조사(4차) 약보고서』.

15)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 해남군-』.

16) 이영철·김미연·장명엽, 2005, 『해남 신금유적』, (재)호남문화재연구원.

17) 최성락·김진영·백명선, 2008, 『해남 황산리 분묘유적 I』, (재)전남문화재연구원.

김진영·장성일·박영훈, 2009, 『해남 황산리 분묘유적 II』, (재)전남문화재연구원.

18) 대한문화재연구원, 2017, 『해남 화산-평호 도로건설공사 구간 내 발굴조사 약보고서』.

19) 성낙준·신상효, 1989, 「해남 원진리 옹관묘」, 『영암 와우리 옹관묘』, 국립광주박물관.

20) 성낙준, 1994, 「해남 부길리 옹관유구」, 『호남고고학보』1, 호남고고학회.

21) 서성훈·성낙준, 1984, 『해남 월송리 조산고분』, 국립광주박물관.

22) 은화수·최상중, 2001, 『해남 방산리 장고봉고분 시굴조사보고서』, 국립광주박물관.

23) 송의정 외3, 2004, 『해남 용일리 용운고분』, 국립광주박물관.



분<sup>25)</sup>·북일면 신월리 방대형고분<sup>26)</sup> 등이 조사되었다.

만의총 1호분의 매장주체시설은 석곽으로 내부 목관과 외부 석곽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물은 신라시대로 추정되는 토우와 서수형토기가 결합된 이른바 ‘토우장식서수형토기’가 출토되었다. 그 외 토착세력의 토기와 함께 백제 무령왕릉 출토품과 같은 양식의 금장식 청동곡옥, 신라양식이 가미된 가야토기, 왜계 조개팔찌 등 다국적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sup>27)</sup> 3호분은 횡구식 석실분 1기와 수혈 1기에서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sup>28)</sup>

용두리고분의 분형은 전방후원형이며, 매장시설은 횡혈식석실이다. 석실 내부에서는 개배·발형기대·호·직구호·고배·장군·흑갈색전문도기편·철족·도자·성지구·판상금구와 각종 옥제품 등이, 분구에서는 개배·고배·호·유광광구소호가, 주구에서는 개배·호·병이, 좁석시설에서는 장경호·유공광구소호·개배·직구호 등이 출토되었다.<sup>29)</sup>

통일신라시대 유적으로는 도기가마가 조사된 오시골유적<sup>30)</sup>이 있다. 유적에서는 2기의 가마가 조사되었는데, 모두 생토면과 기반암 위에 점토를 이용하여 조성하였으며, 소성실의 아래쪽으로 넓게 재퇴적층이 형성되었고, 연질과 경질의 호·완·개·기와류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이 영암 구림리, 공주 가교리 유적 출토 유물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보고자는 가마운영 시기를 통일신라시대 말기로 추정하였다.

고려~조선시대 유적은 도요지, 성지(城址), 봉수 등이 대표적이다. 도요지는 1986년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지표조사가 시행<sup>31)</sup>되었으며, 2002년 목포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산이면과 화원면 일대의 청자가마터와 함께 분청사기가마터 12개소, 백자가마터 16개소, 옹기가마터 24개소 등이 보고<sup>32)</sup>되었다. 발굴조사는 산이면 진산리 청자가마터<sup>33)</sup>와 화원면 구림리 옹기가마터, 구림리 독가촌 옹기가마터<sup>34)</sup>, 백야리 옹기가마터<sup>35)</sup>, 신덕리 청

24)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14, 『해남 만의총 1호분』.

25) 신대근 외4, 2009, 『해남 만의총 3호분』, 국립광주박물관

26) 최성락 외3, 2010, 『해남 신월리 고분』, 목포대학교박물관.

27)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14, 『해남 만의총 1호분』.

28) 신대근 외4, 2009, 『해남 만의총 3호분』, 국립광주박물관.

29) 조현중 외3, 2011, 『해남 용두리고분』, 국립광주박물관.

30)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해남 백야리 요지』.

31) 국립광주박물관, 1986, 『전남지방 도요지 조사보고』.

32) 최성락·한성옥·송태갑, 2002, 『해남의 청자요지』, 목포대학교박물관.

33) 최성락·최건, 1992, 『해남 진산리 녹청자요지』, 목포대학교박물관

34) (재)영해문화유산연구원, 2013, 『해남 구림리 옹기요지』.

35)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해남 백야리 요지』.

자요지<sup>36)</sup>에 대해 이루어졌다. 특히 산이면과 화원면 지역에는 고려시대에 운영된 녹청자가 마터가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생산된 청자는 고려 전기의 짧은 시기에만 한정적으로 보이는 조질의 녹청자들로서 지방과 하급 관청 등의 수요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sup>37)</sup>되고 있다. 최근 조사된 신덕리 청자요지 유적<sup>38)</sup>에서는 청자가마터 1기와 폐기장이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청자 완, 접시 등의 생활용기가 주로 출토되었다.

도요지에 대한 사료는 『世宗實錄地理志』에 하품에 자기소와 도기소가 각 1개소씩 있었다는 것이 유일하며, 이후 『經國大典』과 『東國輿地勝覽』 등의 지리지에는 도자에 대한 기록이 언급되지 않고 있어 해남지역의 요업활동이 중앙통제를 받지 않고 민수용으로 공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성지는 금강산성지, 옥산고성지, 우항리성지, 전라우수영성지, 달량진성지, 흑산고성지, 해남읍성지, 현산고성지 등이 있으며 봉수는 관동리 관두산봉수, 달마산봉수, 송호리 갈두산 봉수 등이 있다.<sup>39)</sup> 금성산성지, 우항리성지 등은 삼별초 항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당시 항쟁의 구체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실시된 현산고성지 발굴조사에서는 고려시대 산성과 관련된 문지 2곳과 조선시대 건물지 3동이 확인되었고, 기와편, 토우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2018년에는 금강산성과 전라우수영성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금강산성 시굴조사<sup>40)</sup>에서는 허튼층 쌓기로 조성된 성벽과, 석축기단등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고려~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도기·자기편 등의 유물이 출토된바 있다. 전라우수영성 발굴조사<sup>41)</sup>는 망해루 남측 훼손된 성벽구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성벽의 규모와 축성방법을 확인하였다.

36)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7, 「해남 신덕리 청자요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37) 최성락·한성욱·송태갑, 2002, 『해남의 청자요지』, 목포대학교박물관.

38)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7, 『해남 신덕리 청자요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39)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 해남군-』.

40) (재)고대문화재연구원, 2018, 「해남 금강산성 발굴(시굴)조사 약식보고서」.

41) (재)마한문화재연구원, 2018, 「해남 전라우수영 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2) 전라우수영의 연혁<sup>42)</sup>

전라우수영은 1377년(禡王 3) 옥구에 수군처치사영(水軍處置使營)이 설치된 뒤, 1408년(太宗 8) 무안 대굴포, 1432년(世宗 14) 목포를 거쳐 1440년(世宗 22)에 현재 위치인 해남 황원곶에 이설되었다. 이어 1465년(世祖 11)에 전라우군절도사영(全羅水軍節度使營)으로 개편되었다. 1479년(成宗 10)에 순천 내례포(현 여수 일원)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영이 설치된 후부터 전라우도 수군절도사영(약칭 전라우수영)이라 칭하였다.

전라우수영의 연혁 및 성내 주요 시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라우수영의 연혁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가장 상세하게 나타나며 전라우수영성의 주요 성곽 시설물 및 그 연혁은 『전라우수영지』와 『해남군읍지』(1924)에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들 문헌을 바탕으로 전라우수영의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377년(禡王 3) : 옥구(沃溝)에 수영 설치 - 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부근
- 1408년(太宗 8) : 대굴포(大堀浦)에 수군처치사영(水軍處置使營) 설치 - 현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대곡마을
- 1432년(世宗 14) : 목포(木浦)에 수군처치사영 설치 - 현 목포시 하당 부근으로 추정
- 1440년(世宗 22) : 황원곶(黃原串)에 수군처치사영 설치 - 현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 1465년(世祖 11) : 전라우군처치사영이 전라우군절도사영(全羅水軍節度使營)이 됨.  
(『대동지지』 등에는 1464년)
- 1479년(成宗 10) : 전라우도 수군절도사영이 됨 - 내례포(內禮浦)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영이 설치되면서 전라우군절도사영이 전라우도 수군절도사영이 됨.
- 1481년~1510년 : 우수영 내 태평정(太平亭)이 건립됨.
- 1502년~1523년 : 전라우수영 관할 진성이 축성됨.
- 1576년(宣祖 9) : 절도사 이발(李潑)에 의해 대대적인 중창(重創)이 이루어짐.
- 1597년(宣祖 30) : 정유재란시 명량대첩으로 왜적을 물리쳤으나, 이후 왜구에 의해 초토화
- 1632년(仁祖 9) : 절도사 황직(黃稷)이 객사인 복파관(伏波館) 창건
- 1644년(仁祖 22) : 절도사 남두병(南斗炳)이 남루(南樓)와 격량고(格糧庫) 창건
- 1664년(顯宗 5) : 절도사 전동흙(全東屹)이 객사 중창(重創)
- 1665년(顯宗 6) : 절도사 유비연(柳斐然)이 망해루(望海樓) 건립
- 1669년(顯宗 10) : 절도사 이간(李旰)이 남장대(南將臺=靜海樓)와 제언(堤堰) 영건(營建)

4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조선시대 수군진 조사 I - 전라우수영편』, 60쪽.

- 1688년(肅宗14) : 통제사 이충무공 명랑대첩비 건립
- 1895년(高宗32) : 칙령 제140호에 의해 폐영
- 1923년(해남군지) : 충무공 비각 중수(重修)
- 1924년(해남군지) : 어사[御使(東軒)], 객사(客舍), 영창(營倉), 작청(作廳), 성곽(城郭), 충무공비각(忠武公碑閣), 제언(堤堰), 정곶사(鼎串寺), 태평정(太平亭), 망해루(望海樓) 건물 등이 잔존. 군기고(軍器庫), 남장대(南將臺), 사대문(四大門)이 없어짐.
- 1947년 : 통제사 충무공 명랑대첩비 경북궁에서 문내면 학동리 1186-7번지로 이설(移設)



도면 3. 비변사인방안지도(1739년 이후)-전라우수영





도면 4. 개국 504년 3월 우수영지 우수영전도(1895년)





사진 2. 영창(營倉) 사진1(연도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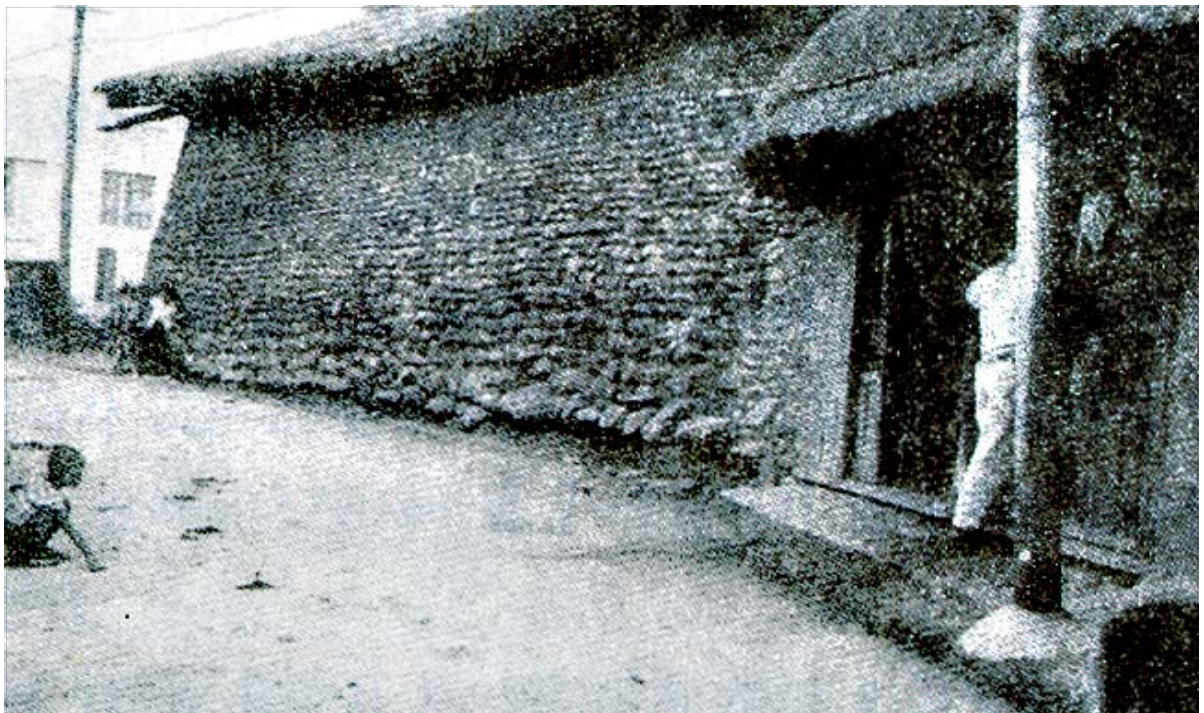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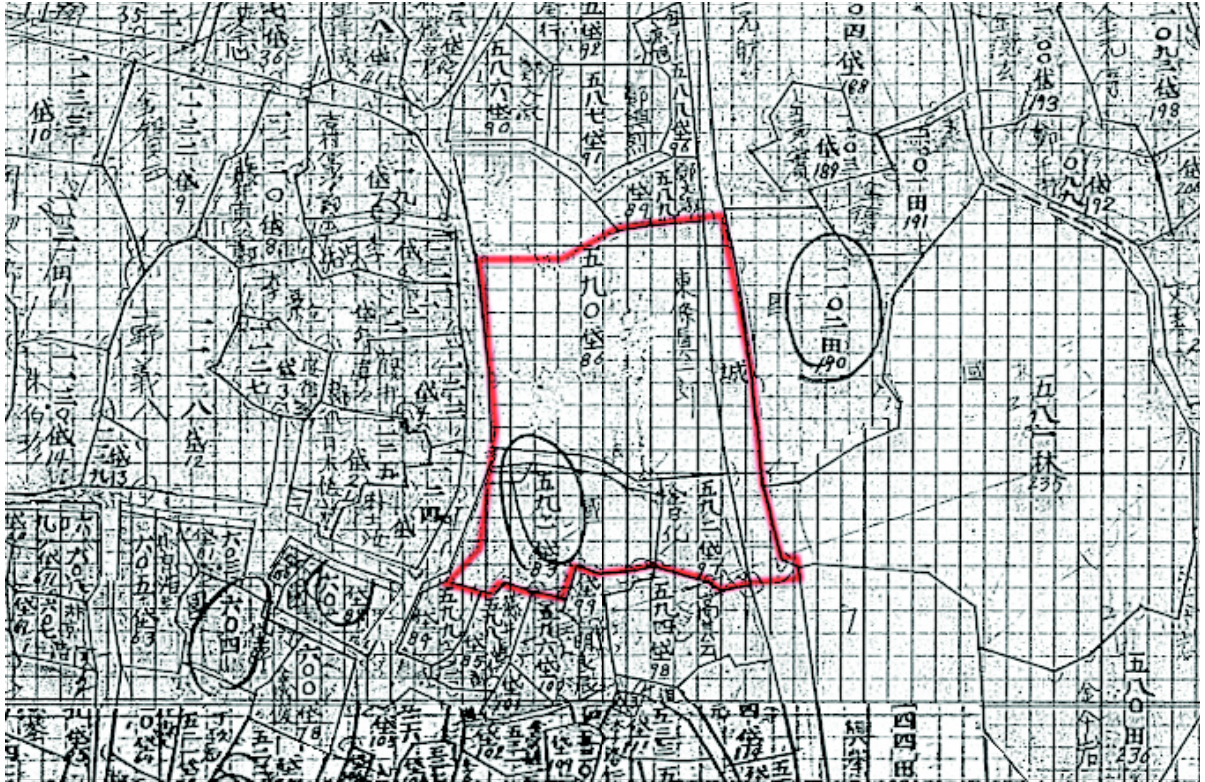


사진 3. 영창(營倉) 사진2(연도미상)





도면 5. 조사지역 지적원도(1915년-도면상 수기로 표시된 지역은 국유지)



사진 4. 조사지역 과거 항공사진(1967년)





사진 5. 조사지역 과거 항공사진(1986년)



사진 6. 조사지역 과거 항공사진(2008년)



### Ⅲ. 조사내용

#### 1. 조사지역 현황 및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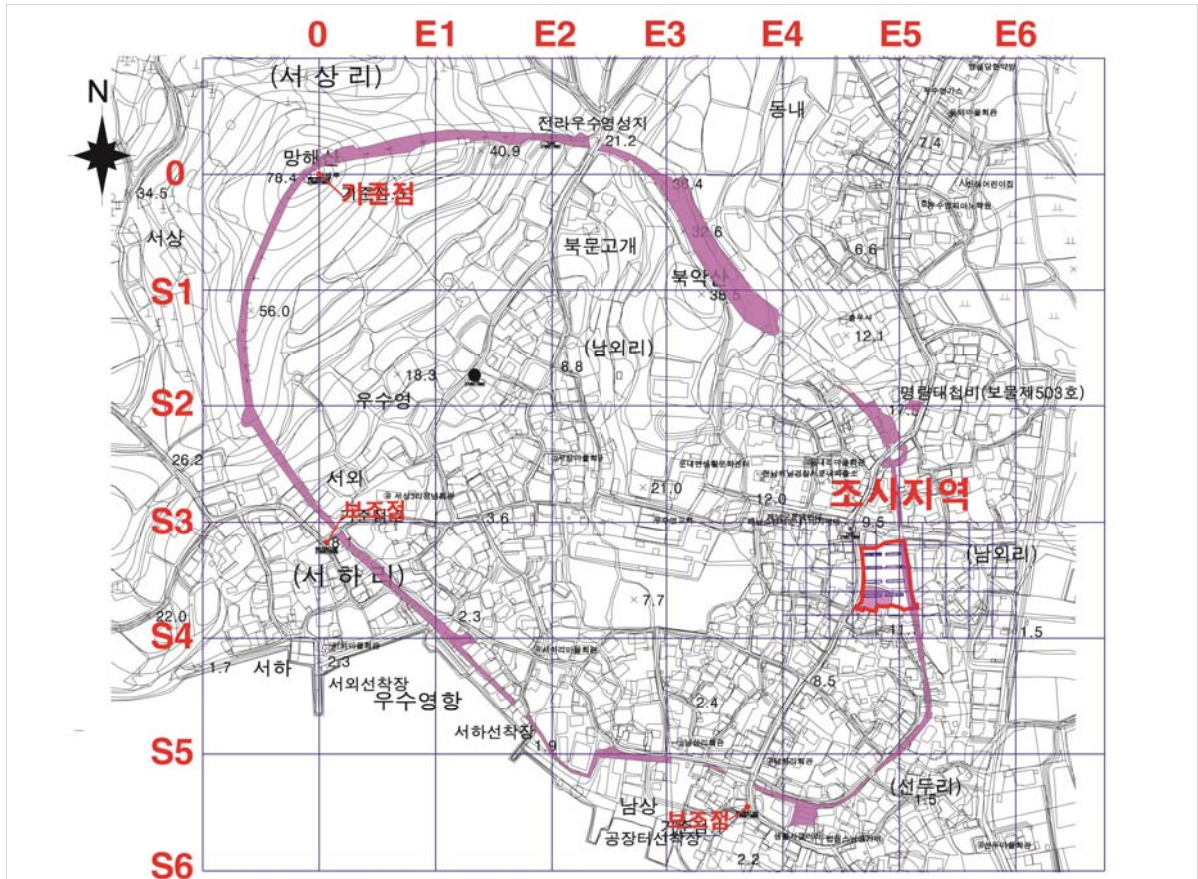
이번 조사는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에 위치한 사적 제535호인 ‘해남 전라우수영’의 영향 추정지역에 대한 정밀발굴조사이고, 조사면적은 2,206㎡이다. 조사지역은 2018년 시굴 조사 실시이후 복토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조사지역의 남측 경계부에는 암반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암반의 상부는 주변보다 약 1m 가량 높은 상태였다. 동측 경계에는 전라우수영의 성벽이 잔존하고 있고, 성벽의 상부에는 시멘트 블록으로 조성된 담장이 위치하고 있었다. 조사지역의 서측은 우수영안길과 접하고 있으며 북측과 동측, 남측으로는 주택이 인접해 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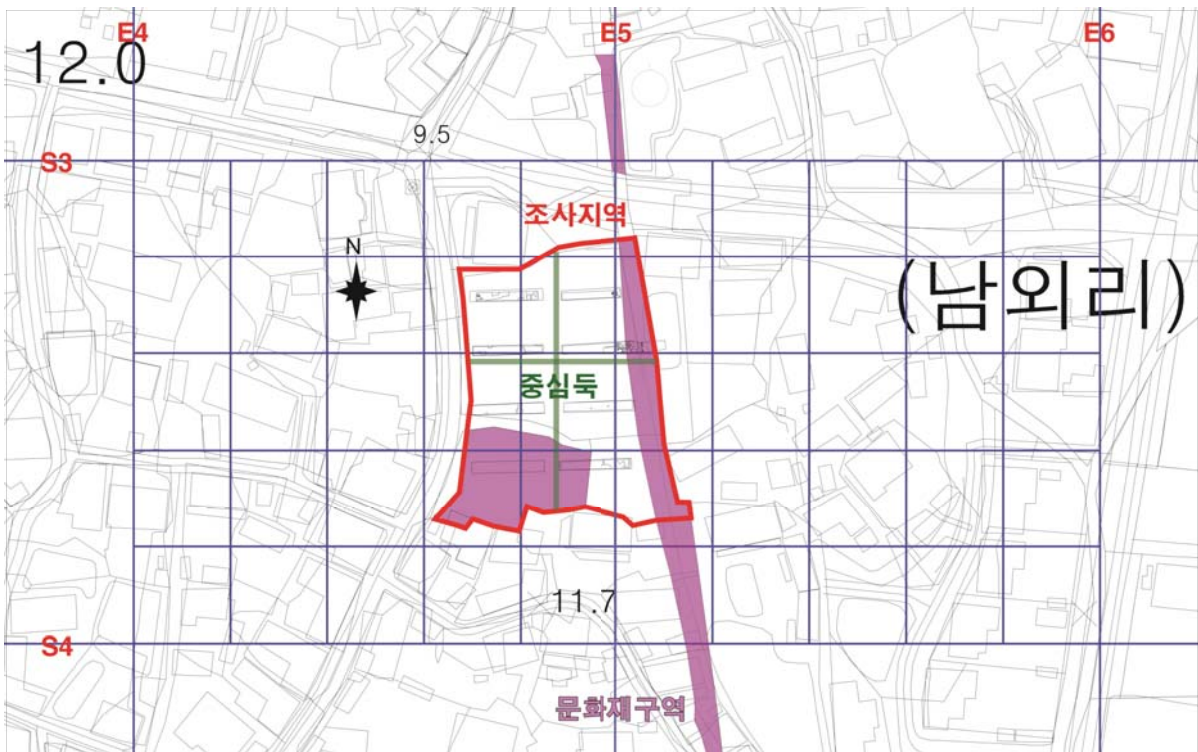
정밀발굴조사는 전라우수영성 전체에 걸쳐 설정한 그리드를 기준으로 조사지역 내에 ‘十’자형 중심독을 설정하였으며, 동서 방향 중심독으로부터 약 15m 내외의 거리를 두고 보조독을 설정하여 조사지역의 전반적인 층위 변화양상을 파악하였다.

조사지역에 대한 제토는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층위를 기준으로 유구가 확인되는 면까지 하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곳에서는 자연층(풍화암반 또는 적갈색 풍화암반토)이 노출되는 면까지 제토를 진행하였다.

조사지역 동측 경계에 위치하는 성벽에 대한 조사는 뒷채움의 상면까지 노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단면조사는 시굴트렌치와 교란지역을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도면 6. 해남 전라우수영 전체 그리드(100m)



도면 7. 조사지역 그리드(20m)





사진 7. 조사지역 조사 중 전경(동→서)



사진 8. 조사지역 조사 중 전경(남→북)



## 2. 층위

이번 조사지역에 대한 하강조사는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층위를 기준으로 제토를 실시하였다. 제토결과, 조사지역의 원지형은 남측과 남서측 일대에서부터 부채꼴 형태로 완만하게 낮아지는 암반지형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지역 대부분은 풍화암반이 바로 노출될 정도까지 원지형 상면이 훼손된 상태로 노출되었으며, 조사지역 북측 일원의 경우에는 지표에서부터 약 2m 깊이까지 현대 폐기층 및 근대 매립층이 확인되었다. 조사지역 북동측, 동측, 남동측 일부에는 암반위로 유구·유물 포함층과 성벽 뒷채움 관련층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의 대표 층위는 다수의 유구가 밀집되어 확인된 남동측지역의 층위(추정 건물지 1 내부)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지역의 층위는 크게 5개층으로 구분되었으며, 지표층(현대 폐기층) → 근·현대 폐기층(Ⅰ층) → 성토층(Ⅱ층) → 유구·유물포함층(Ⅲ~Ⅶ층) → 자연층(암반 또는 풍화암반토)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지역 층위 중 유구·유물 포함층은 갈색사질점토층과 암갈색사질점토층이 수차례에 걸쳐 교차 퇴적된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층위 양상과 아궁이 등의 유구가 중복된 양상으로 확인된 것을 종합해보면 유구의 조성과 폐기가 반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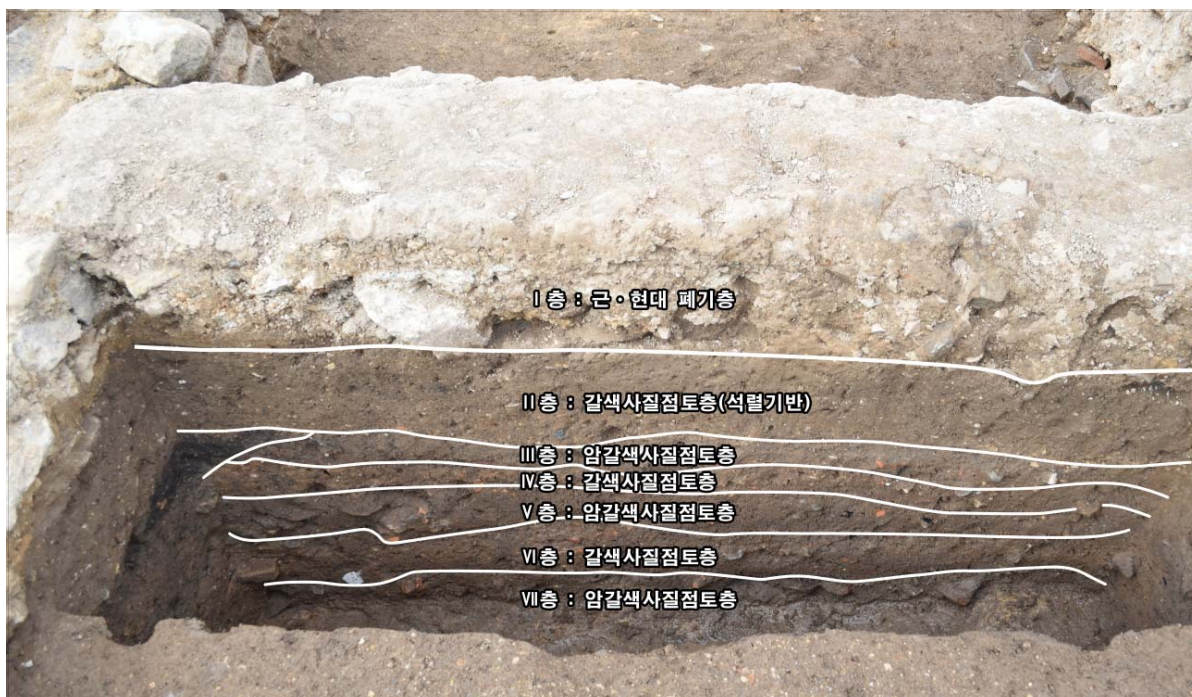


사진 9. 추정 건물지1 내부 층위 양상



### 3. 정밀발굴조사

이번 조사지역은 해남 전라우수영의 영창이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2018년에 실시한 시굴조사에서 추정주거지, 성벽 뒷채움, 수혈, 주혈, 소결흔 등의 유구가 확인된 지역이다.

정밀발굴조사 결과, 현재까지 추정 건물지 1기, 추정 주거지 2기, 아궁이 5기, 소결흔 4기, 잡석독립기초 1기, 구상유구 1기, 수혈 7기, 주혈 17기, 미상석렬 1기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조사지역 동측 일원에서는 잔존성벽과 성벽의 뒷채움과 관련된 유구가 조사되었다. 확인된 유구 중 성벽관련 유구와 주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사지역 남동측과 북서측 지역에서 노출되었다.

**추정 건물지1**은 조사지역 남동측에서 확인되었다. 유구는 동쪽이 교란으로 인해 결실되어 ‘ㄷ’자 형태로 석렬이 잔존하고 있었으며, 잔존하는 석렬의 상부에는 현대 폐기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추정 건물지1의 석렬은 2열의 석재를 양측으로 면맞춤을 하여 조성한 것이 2~3단 가량이 잔존하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건물지 내부 토층 조사결과, 추정 건물지1은 조선후기~근대에 조성한 성토층을 기반으로 조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추정 주거지**은 조사지역 남동측에서 추정 주거지1이 확인되었고, 북서측에서 추정 주거지2가 현대 건물에 의해 훼손된 양상으로 노출되었다. 추정 주거지1은 연도 주변 일부만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유구 내부 잔존 깊이가 2cm 내외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주거지의 바닥면 일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정주거지2는 조사지역 북서측에 위치한다. 유구의 북측과 동측은 근대 건물의 기초로 인해 훼손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남측은 토층독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았다. 북측 훼손범위에 대한 일부 절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연층을 굴착하고 조성한 흔적이 약 20cm 깊이로 확인되었다.

**아궁이**는 5기 모두 조사지역 남동측에서 서로 인접해 있는 양상으로 노출되었고, 아궁이의 번호는 조사지역 남측에서 북측으로 아궁이1~아궁이5로 명명하였다. 아궁이1은 조사지역 남측 경계에 맞물려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남북방향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부만 노출되어 전체적인 규모와 형태는 파악 할 수 없었다. 아궁이2는 아궁이1의 북측에 위치하고, 평면형태는 동서방향으로 긴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다. 아궁이3과 아궁이4는 아궁이2로 부터 북측으로 약 1m 거리에서 2기가 중복된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아궁이3과 아궁이4의 평면형태는 남북방향이 긴 타원형으로 노출되었다. 아궁이5는 아궁이4로 부터 북측으로 약 1.5m 거리에서 확인되었다. 현재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명확하게 노출되지 않

았으나 목탄의 노출범위로 볼 때 동서방향으로 추정된다.

**소결흔**은 아궁이로 추정되지만 깊이, 소결 범위 등 잔존양상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유구를 소결흔으로 명명하였다. 소결흔은 조사지역 중앙부 서측에서부터 북측으로 4기가 불규칙한 거리를 두고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잡석독립기초(적심석)**은 조사지역 북서측에서 1기가 조사경계에 인접한 위치에서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의 북서측 일부에 대한 제토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 잡석독립기초와 관련된 유구의 성격과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상유구**는 조사지역 북서측에서 남동-북서 방향으로 확인되었는데, 구상유구의 상부로 근대건물지 조성과 관련된 성토층이 형성되어있어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면 유구의 성격과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혈**은 조사지역 전반에 걸쳐 7기가 확인되었고 일부 수혈은 잡석독립기초의 흔적 혹은 대형 주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혈**은 현재까지 총 17기가 조사되었는데, 주로 조사지역 서측 암반 노출지역에서 확인되었다. 주혈은 현재까지 규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성벽관련 유구**는 조사지역 동측 경계지역에서 잔존 성벽과 성벽 뒷채움, 잡석군이 확인되었다. 잔존 성벽은 조사지역의 북동측 경계에서 상부는 잡초 등으로 인해 가려져있는 상태였으며, 성벽의 기초부는 현대 폐기물이 포함된 토사가 쌓여있는 상태였다. 성벽에 대한 조사는 잡초와 폐기층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노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성벽이 지대석을 포함하여 2단~7단 가량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자(刻字)가 있는 성돌이 확인되었다.

성돌의 각자는 약 22자가 새겨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판독이 가능한 글자는 일부분이며, 문자의 쓰기 방향 또한 2~3 가지로 볼 수 있어 전체적인 내용파악은 어려운 상태이다. 판독이 가능한 내용은 ‘上十六尺五寸’이 있으며, 都, 色, 朴, 知, 同 등의 판독 가능 문자가 확인되었다.

성벽 뒷채움 양상은 현대 교란으로 인해 상당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기존 시굴트렌치를 이용하여 실시한 뒷채움 단면조사에서는 암반위에 얇은 잡석을 1층 깔고 그 위로 황갈색 풍화암반토를 성토한 양상과 퇴적층을 굴착하고 잡석과 적갈색 사질점토를 번갈아 층층이 쌓아올린 유사판축 양상의 조성방식이 확인되었다.

잡석군은 조사지역의 북동측에서 성벽 뒷채움 양상에서부터 서측으로 최대 약 10m 정도 범위까지 조성되어있는 것으로 볼 때 성벽 뒷채움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잡석군이 노출되지 않은 부분은 갈색사질점토층이 노출되었다.



사진10. 조사지역 유구 현황사진(↑ 북)





사진11. 추정 건물지1 조사중 항공사진(위쪽이 북쪽)



사진12. 추정 건물지1 조사중 전경(서→동)



사진13. 추정 주거지1 전경



사진14. 추정 주거지2 전경



사진15. 아궁이1 조사 전



사진16. 아궁이1 내부 층위



사진17. 아궁이2 조사 전



사진18. 아궁이2 내부 층위





사진19. 아궁이3 조사 전



사진20. 아궁이3 내부 층위



사진21. 아궁이4 조사 전



사진22. 아궁이4 내부 층위



사진23. 잡석독립기초(적심석) 조사 전



사진24. 구상유구 조사 전



사진25. 소결흔1 조사 전



사진26. 소결흔2 조사 전





사진27. 소결흔3 조사 전



사진28. 소결흔3 조사 중



사진29. 수혈1 조사 전



사진30. 수혈1 층위



사진31. 수혈2 조사 전



사진32. 수혈2 층위



사진33. 수혈5 조사 전



사진34. 수혈5 층위





사진35. 주혈2 조사 전



사진36. 주혈3 조사 전



사진37. 주혈5 조사 전



사진38. 주혈7 조사 전



사진39. 주혈16 조사 전



사진40. 주혈15 조사 전



사진41. 미상석렬 조사 전



사진42. 미상석렬 조사 중





사진43. 북동측 잔존 성벽 조사 전(북동→남서)



사진44. 북동측 잔존 성벽 조사 후(동→서)





사진45. 북동측 잔존 성벽 조사 후(남동→북서)



사진46. 북동측 잔존 성벽 조사 후(북동→남서)





사진47. 북동측 잔존 성벽 각자(刻子)



사진48. 북동측 잔존 성벽 각자(刻子) 하단 - '上十六尺五寸'





사진49. 성벽 뒷채움 노출 항공사진(왼쪽이 북쪽)



사진50. 성벽 뒷채움 관련 층위 양상1



사진51. 성벽 뒷채움 관련 층위 양상2





사진52. 성벽 뒷채움 유사판축 양상



사진53. 성벽 뒷채움 잡석 노출 양상



사진54. 성벽 뒷채움 잡석 노출 양상 입면



사진55. 성벽 뒷채움 추정 잡석군(서→동)



사진56. 남동측 경계 성벽 잔존 양상(남→북)



### Ⅲ. 조사 성과

이번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적 제535호 ‘해남 전라우수영’의 영창 추정지역에 대한 정밀발굴조사이고, 조사면적은 2,206㎡이다.

영창 추정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는 2018년에 우리연구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시굴조사 결과, 성벽 뒷채움, 추정 주거지, 구상유구, 수혈, 주혈, 소결흔 등이 확인된 바 있다.

조사지역의 층위는 크게 5개 층으로 구분되었으며, 지표층(현대 폐기층) → 근·현대 폐기층(Ⅰ층) → 성토층(Ⅱ층) → 유구·유물포함층(Ⅲ~Ⅶ층) → 자연층(암반 또는 풍화암반토)의 순서로 확인되었고, 조사지역 북측 일원의 경우에는 지표에서 약 2m 내외 깊이까지 현대 매립층이 형성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밀발굴조사는 전라우수영 전체에 설정한 그리드를 기준으로 조사지역에 ‘+’자형 중심독과 동서방향의 보조독을 설정하여 조사지역의 전체적인 층위양상을 파악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현재까지 추정 건물지 1기, 추정 주거지 2기, 아궁이 5기, 소결흔 4기, 잡석독립기초 1기, 구상유구 1기, 수혈 7기, 주혈 17기, 미상석렬 1기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조사지역 동측 일원에서는 잔존 성벽과 성벽의 뒷채움 관련 유구가 조사되었다. 북동측 잔존 성벽에서는 각자(刻子)가 있는 성돌이 조사되었다.

## IV. 토의 사항

### 1. 조사 내용에 대한 학술적 자문

- 조사 유구에 대한 학술적 자문
- 출토유물에 대한 학술적 자문

### 2. 유적의 향후 처리방안 및 제언

- 향후 조사 방향
- 조사된 유구의 처리방안

### 3. 기타 사항





**2020**

**HanUI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